

산암 변시연의 유림활동과 『文苑』 편찬

金 建 佑*

- I. 머리말
 - II. 변시연의 생애와 유림활동
 - III. 『文苑』 편찬과정과 방식
 - I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汕巖 邊時淵(1922~2006)의 생애와 유림활동, 그리고 『文苑』의 간행과정과 편찬기준에 대해 서술하였다. 20세기 들어와 유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적 충격을 겪으며 살았던 근현대 유학자의 삶과 활동을 추적하여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는 시각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다. 변시연은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先代의 고문서, 典籍들을 망실 당하는 경험을 통해 문헌 수집·정리·편찬에 뜻을 두고 평생토록 실행에 옮겼다. 특히 1957년부터 32년 동안 원집 67책, 속집 7책 총 74책으로, 수록 인물 2천여 명에 6천 7백여 편의 글을 수록한 『문원』을 편찬했다. 筆巖書院 儒會에서 논의한 『문원』 편찬 범례 22개 항목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문체 중

* 전주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부교수 / kunwoo629@hanmai.net

류, 선별기준, 절차, 경비 등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원』 간행에 동참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에 대해 『文苑同刊錄』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62년 6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11년 7개월 동안 4만 8,500명의 『文苑刊所時到記』를 남겼다. 이는 향후 현대 유림의 인적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69년 동안 써오던 『汕巖日記』가 남아 있어 현대 유림의 생활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자료로 파악된다.

◆ 주제어

儒林, 文苑, 邊時淵, 文苑同刊錄

I. 머리말

이 글은 20세기를 살다간 汕巖 邊時淵이 편찬한 『文苑』에 대한 글이다. 산암 변시연은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선대의 고문서, 전적들을 망실당했던 경험을 통해 대규모 문헌 수집·정리·편찬에 뜻을 두고 평생토록 실행에 옮겼다. 1957년부터 30여 년 동안 신라 시대부터 韓末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한문 작품을 수집하여 방대한 『문원』을 편찬하였는데, 원집 67책, 속집 7책으로, 수록 인물이 2천여 명에 이르고, 6천 7백여 편의 글을 수록했다.

『문원』은 조선 초기 서거정 등이 역대 詩文을 집대성한 『東文選』 이래 가장 방대한 선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원』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정식으로 제출된 바가 없으며 편찬자 변시연의 기본적인 생애 정보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문원』은 목차조차도 DB화되어 있지 않아 열람 및 이용의 불편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산업화와 현대화에 밀려 전통시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시대적 환경이 주요한 원인일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문원』을 편찬하게 된 목적이기도 하였다.

20세기 들어와 유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적 충격을 겪으며 살았던 근현대 유학자의 삶과 활동을 추적하여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일 수 있다. 이 글은 변시연의 家狀, 묘갈명 등을 통해 그의 생애를 추적하고 아울러 유림활동을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유림활동이란 향교·서원·사우 정비, 先祖와 儒賢의 문헌 간행, 선조의 묘역 정비 등을 가리킨다. 그는 선조와 유현의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편찬·간행함으로써 선조의 위상을 높이고 유림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변시연의 일생을 바친 『문원』의 편찬과정과 방식, 수록기준 등을 검토함으로써 문헌편찬 의식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II. 변시연의 생애와 유림활동

변시연은 1922년 8월 10일(음력)에 장성을 安平里 簪岩洞에서 태어났다. 그의 자는 敬中이고, 호는 산암이다.¹⁾ 본관은 黃州로, 고려 충신 泰川伯 邊呂가 시조이다. 변려의 후손이 장성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려 후기 中軍司正 邊靜이 숙부 典工判書 邊光秀를 따라 여러 차례 전투에서 공적을 세웠는데, 변정이 벼슬을 버리고 장성에 은거하면서 입향조가 되었다.²⁾

장성의 황주 변씨 顯祖로는 明山公 邊德胤을 들 수 있는데, 沙溪 金長生(1548~1631)의 제자이다. 그는 병자호란 당시 의병을 일으켰다가 삼전도의 소식을 전해 듣고 낙향하여 은거하였다. 玄石 朴世采(1631~1695)가 그의 행장을 지었다. 그리고 삼대를 내려와 遯菴 邊恬이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이 나서 전라감사가 추천하는 대상에 들기도 하였다.

도암 변괄의 손자인 碁翁 邊宗洛(1792~1863)은 유교를 남겼으며, 초상화를 모신 影堂 및 그와 관련된 정자인 碁翁亭도 남아 있는데, 바로 변시연의 5대조이다. 변시연의 고조는 省菴 邊相鴻(1812~1860), 증조는 松山 邊大容이다. 변대용은 蘆沙 奇正鎭(1798~1879)의 제자로서 학문이 뛰어나고 기개가 넘쳤다고 한다. 조부 邊貞基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부친 邊鎭壽는 호가 山水軒으로, 『山水軒實記』가 세상에 전한다. 모친은 광산김씨 金永采의 딸로, 棠溪 金華俊의 후손이다.

변시연은 6세 때 어머니에게 한글을 배워 깨쳤고, 7세 때 簪谷 金堯堉에게 천자문을 배웠다. 관례 이후에는 棲山 金堯元의 家塾에서 글을 읽었다. 17세 때 부친의 편지를 지니고 報恩 觀善齋로 가서 兼山 洪致裕(1879~1946)를 뵈고 그곳에서 학문을 닦았다.³⁾ 홍치유는 鶴峯 金誠

1) 이 장에서는 변시연의 行狀과 묘갈명, 문집 등을 토대로 변시연의 가계, 생애와 유림활동을 살펴보았다. 변시연의 家狀과 李性雨가 지은 변시연의 행장 및 묘갈명과 『산암일기』 등 자료는 (사)한국고전문화연구원장 변주승(전주대 교수)에게 제공 받았음을 밝히둔다.

2) 李性雨, <汕巖府君家狀>.

一의 11대 종손이자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西山 金興洛(1827~1899)의 손제자였다. 이런 인연으로 변시연은 경상도 학봉 집안과 평생 교류를 이어갔다. 그는 2001년에 변시연은 조선시대 黨色과 그 폐해를 통렬하게 비판한 한시를 짓기도 하였다.⁴⁾

그 후 石農 吳震泳(1868~1944)에게 제자의 예를 올렸다. 오진영은 『中庸』의 제2장에 나오는 ‘時中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이르면 時淵과 연결하여 ‘敬中’이라는 字를 내려주고, 작별할 때엔 7언절구를 지어 항상 敬하라고 권면하였다.⁵⁾ 이듬해 병중에 있던 부친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으나 세상을 떠나자 예법대로 삼년상을 치렀다. 19세 때 일제는 創氏改名을 강요했지만, 그는 ‘이는 의리를 해치는 짓이다. 상투를 자르고 의복을 바꿔 입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고서 오진영·홍치유·宋毅燮·權載圭 등에게 편지를 보내 의견을 묻고 끝까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다.

20여 세쯤 충청도 지역을 공부하러 다닐 때 寒食날을 맞아 어머니를 그리며 지은 시가 있다.⁶⁾ 22세 때 부친의 유혼을 받들어 머리를 기르고 갓을 썼다. 일제의 탄압이 극성한 시기인데도 이처럼 전통 의관을 하니 온 고을의 화젯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변시연의 첫째 부인은 漢陽趙氏 忠靖公 仁沃의 후손이며 誠信의 딸로, 1남 3녀를 두었다. 둘째 부인은 晉州姜氏로, 2남 2녀를 두었다.

광복 이후 장성에서 전통이 오래된 문중 후손 중에 상투를 지켜온 유림을 중심으로 九老會가 결성됐다. 변씨 문중에서는 젊은 변시연을 추천했는데 그는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모두들 ‘唐나라 香山

3) 홍치유 저, 전병수 역, 『관선정에서 들리는 공부를 권하는 노래-검산 홍치유 선생 권하기』, 「관선정서숙과 홍치유」, 도서출판 수류화개, 2020, 10쪽.

4) <黨禍有感> 『汕巖後稿』 1책, 한국고문연구회, 2006, 197~198쪽.

5) 『汕巖日記』 권6. “朝後余告歸 石翁贈余一絕曰 道在眼前勿外求 治心尊性事皆由 群經無慮萬千語 摠爲修身敬作樞”

6) “遠遊千里緣何事 무슨 일로 천 리 밖 먼 길을 돌아다니니/ 此日未歸意不平 이런 날 집에 못 가니 마음이 편치 않네/ 遙想吾家偏老母 우리 늙으신 홀어머니 멀리서 생각하니/ 斜陽其奈依閨情 해 질 녘 자식 기다리는 마음 어이 할거나”

九老會에 狄兼謨가 참여한 전례가 있다.’라고 강권하여 할 수 없이 가입했다고 한다.⁷⁾ 스승 석농 오진영의 문집을 출판할 때 시대적 상황이 예전과 달라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전국에서 모금활동을 하여 1950년에 연활자본의 『석농집』을 마침내 간행했다. 광복 이후 1949년 성균관에서 지방 향교에 공자 제자 10哲과 宋나라 4賢의 위패 이외의 위패를 폐기하라고 지시하자,⁸⁾ 변시연은 장성의 유림과 상의하여 현인들의 위패를 향교에 도로 모셔놓았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周菴 沈良再, 종숙 芝山 邊鎭壹과 유가족동지회를 결성하여 시신을 수습해 안장하는 한편 공산당 소탕에 협력하였다. 그리고 扶養院을 설립해 거의 백 명에 달하는 고아들을 수용하였고 순국자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대대적으로 거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長城庚寅誌』 2책도 편집하였다.⁹⁾

1952년 변시연은 당시 30세로 필암서원 執綱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유림활동을 하였다. 사우에 보관되어 있던 서원의 편액을 강당으로 옮겨 걸고, 두 벌의 祭器를 사용하던 관례를 바꿔 4벌의 제기를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저명한 유림과 대학의 총장들을 초빙하여 제관으로 세웠다. 그리고 山仰契를 설립하여 논 20마지기를 구입하고, 문루와 동재·서재를 다시 손질하고 담장을 쌓고 토지를 넓히는 등 서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1975년에는 『筆巖書院誌』를 편찬하였다.

1957년에 건립된 安城 景仰祠는 老洲 吳熙常(1763~1833), 艮齋 田愚(1841~1922), 석농 오진영 세 선생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다. 경양사를 건립하던 초기에 뜻을 함께 하는 유림과 모금하여 3마지기 땅을 헌납하였다. 또한 『倫綱錄』(1977년), 『長城鄉校誌』(1978년),

7) 참고로 구로회에 가입한 이들은 後松 金哲鎬, 오남 김도중, 景陽 李承燁, 小柏 奇雲度, 清窩 金徹浩, 동곡 김준식, 強齋 金宰植, 河源 朴鶴求이다.

8) 이천승, 「해방후 位牌埋安을 통해 본 유림계의 동향」, 『동양철학』 제54호, 한국동양철학회, 2020, 101~108쪽.

9) 『장성경인지』는 분실되어 현재는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儒林錄』을 편찬하였다.

1965년 가을 碧農 金相晉(1902~1992)과 함께 詩會인 鰲山吟社를 결성했는데¹⁰⁾, 동곡 김준식, 양재 권순명, 번계 김운동, 궁당 이규현 등 전국에 이름있는 유림이 잇따라 오산음사에 가입하여 의 3백 명에 달하였다. 한 사람당 漢詩 2수씩으로 한정해 1974년에 『鰲山吟社誌』 150부를 간행하여 배포하였다. 오산음사 창립 당시 활동했던 참여 유림이 점차 세상을 떠남에 따라 1996년 변시연이 주도하여 巽龍吟社를 결성하여 시회를 이어갔다.¹¹⁾

1978년 8월에 장성 高山書院에 藏板閣을 세우고, 『竹林祠誌』를 편찬하였다. 화순의 竹樹書院은 靜庵 趙光祖(1482~1520)와 學圃 梁彭孫(14881~1545) 두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중도에 위패의 배향 위치로 인해 분구가 발생하였는데, 변시연이 예전대로 행하자고 중재하여 갈등을 종식시켰다. 그 후 2001년에 『竹樹書院誌』를 편찬하였다. 또한 수 십년 동안 장성향교 뒷산 임야가 성산국민학교의 소유로 잘못 편입어 있었는데, 1970년에 변시연 등이 연명으로 청원서와 진정서를 올려 마침내 장성 교육장이었던 高福南을 설득하여 원래대로 장성향교 임야로 반환 받았다.¹²⁾

1976년 經 節孝公 徐稜을 위하여 장성 북일면에 龍田祠를 다시 건립하는 일에 협력하고 봉안문과 『節孝公實記』를 지었다. 또한 호남의 한말 유명한 유학자 문집인 『蘆沙集』과 『艮齋集』을 영인·출판하고 발문을 썼다. 그리고 『松沙集拾遺』, 『年譜』, 『沙上挽祭錄』(1980년)을 간행하고 직접 발문을 지었다.¹³⁾

10) <鰲山吟社第一回>, 『學言志』 권1(『汕巖全稿』 1), 한국한문교육연구원 발행, 학민문화사 편집, 2000.

11) 『巽龍詩稿』, 손룡음사 발행, 청진문화사, 2006.

12) <長城鄕校林返還에 關한 請願書>, 『汕巖別稿』(上), 한국한문교육연구원 발행, 도서출판 흐름 편집, 2005, 280~296쪽.

13) 변시연은 주요 동문과 힘을 모아 일제의 검열로 인해 『송사집』에 미처 실지 못했던 <湖南義士列傳> 등 기우만의 遺文을 수습하여 『송사선생습유』 간행을 주도하였다. 또한 선배 문인들의 문집 발간에 참여하여 서문과 발문 등을 작성하여 노사학과의

변시연은 선조의 글을 모으고 편찬하는데 열성을 다하였다. 황주변씨와 원주변씨 연혁과 벼슬 이력 그리고 誌文과 行狀 등 여러 문헌을 널리 수집하여 『黃原州邊氏文獻錄』 26권을 1987년에 편찬·간행하였다.¹⁴⁾ 1988년에 황주변씨의 시조 태천백 邊呂 이래로 知門下省事典工判書公에 관련된 사실을 『고려사』에서 살살이 찾아 모두 기술하였다. 또한 변시연은 선조의 글을 수집하여 『明山實記』, 『遜菴逸稿』, 『基翁遺稿』, 『省菴逸稿』를 합해 1책, 『鳳棲遺稿』, 『愼默齋遺稿』, 『鳳南集』, 『正巖遺稿』, 『耕隱遺稿』를 합해 1책, 『松山逸稿』, 『學生公貞基遺蹟』, 『明雲隨錄』, 『산수현실기』를 합해 1책, 『晦山集』 1책, 모두 합해 4책을 이름하여 『明山世稿』를 간행하였다.¹⁵⁾

장성 입향조인 邊靜과 관련이 깊은 永思亭에 대해 변시연은 글을 짓고, 淵民 李家源에게 기문을 받고 龍田 金喆熙에게 銘을 받았다.¹⁶⁾ 장성군의 鄭子洞과 紫霞洞은 霞谷 鄭雲龍(1542~1593)과 紫霞 邊慶胤(1574~1623)¹⁷⁾ 두 인물의 유적지인데, 변시연은 동네 어귀에 자연적으로 비석을 세워 그 유적지임을 표시하였다.

望庵 邊以中(1546~1611), 자하 변경윤은 변시연의 從先祖로, 문집을 간행하고 자하 변경윤의 묘비를 세웠다. 변씨 종중에서 鳳巖書院을 다시 세우려고 하였으나 형편과 재력이 아주 피폐한 상황이었다. 전라남도지사에게 건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받아 西齋와 강당을 수리하고 火車 제조를 재현하였으며, 是懲堂과 虔奉舍를 건립하였다.¹⁸⁾ 이처럼 변시연은 선

학문 전통을 구체화하는 데 진력하였다.(박학래, 「기우만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학과의 지속」, 『유학연구』 57집, 2021, 89~90쪽.) 변시연은 노사학맥의 가문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변시연은 수학기에 되게 학맥과 연결되었고, 그 후에 간재학파인 석농 오진영의 제자로 들어갔다. 그의 交流 인맥과 활동을 살펴보면 노사학파와 간재학파를 한정 짓지 않고 통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시연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14) 『黃原州邊氏文獻錄』은 2002년 전4책으로 학민문화사에서 영인 간행되었다.

15) 『明山世稿』 전4책, 한국고문연구회 편집·발행, 학민문화사, 2002.

16) <永思亭記>, 『亦乎說』 권4(『汕巖全稿』 5), 학민문화사, 2000, 356~358쪽.

17) 정운룡은 자하 변경윤의 스승이고, 망암 변이중과는 交遊하는 사이였다.

18) 봉암서원은 1697년(숙종 23)에 변이중의 덕행과 업적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조의 유고를 수집 발굴하여 편찬하는 한편, 선조의 유적지를 기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다.

변시연은 1959년 文苑編刊會를 설립하여 『문원』 편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일이 일단 종료되자 그 후 한국고문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해 여러 문헌을 수집 정리하여 편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1989년 『古文研究』 창간호 발간을 시작으로 해마다 발행하였는데,¹⁹⁾ 『고문연구』에서는 80장 미만의 遺稿, 고문서 등이 발굴되는 대로 소개하였다. 李相寶, 金一根, 尹絲淳, 崔永禧, 朴秉濠, 崔根德, 宋俊浩, 黃溟江, 朴煥圭, 趙鍾業, 金時晁, 李成茂 등 당시의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고문연구회 회원은 약 2백 60여 명에 이르렀다.

변시연은 1994년 7월 윤동주 생가 보수, 문학비 건립을 둘러보고 상해 임시정부 옛 청사 등을 방문했다. 백두산 천지, 龍井, 圖們을 경유하면서 연변 지역을 읊은 한시 71수를 남기기도 하였다. 1993년 용정의 金在權²⁰⁾이 변시연에게 편지를 보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시연은 광주매일신문사에 연락을 취해 여론 조성을 하여 6천만원을 모금하였다. 1994년 8월 용정의 도서관 개관식 때에는 광주매일신문사장 高濟哲과 함께 가서 개관식을 참관하였다.²¹⁾ 1994년 5월 변시연은 일본 쓰쿠바[筑波] 대학 초청으로 ‘근세조선 교육제도와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리고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同姓禁婚을 위헌으

위패를 모신 곳이다. 그 뒤 1707년에 변경운을, 1728년에 尹軫·邊旹를 추가 배향하였다.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로 훼손되었다가 1975년 전남 유림에 의하여 복원 공사가 시작되었고, 해당 서원은 火車製造 유적지라 하여 1982년 전라남도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84년 2월 준공식 때 邊允中이 추가 배향되었다.(〈鳳巖書院復設實話〉, 『桑榆稿』 권2.)

19) 『고문연구』는 198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0년에 13호까지 간행되었다.

20) 김재권은 1938년 중국 길림성 용정시 팔도진 쌍봉촌에서 출생하였다. 독학으로 연변대학교 조선어문학과 문화예술반을 졸업하고 팔도인민공사 문화소장, 연길현 문련주석, 연변민간문예가협회 부주석과 명예주석, 용정 한글독서사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21) <龍井韓字讀書社開館願末>, 『汕巖別稿』(上), 한국한문교육연구원 발행, 도서출판 흐름 편집, 2005.

로 판결하자, 이를 성토하는 운동을 장성지역 대표로 활동하였다.

변시연은 선조와 유현의 글을 편찬·간행한 것 외에도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而之錄』(1973) 11책, 『亦乎說』(1984) 13책, 『學言志』(1986) 1책, 『桑榆稿』(1988) 7책, 『續桑榆稿』(1997) 9책, 『巽龍草』(1998) 3책을 편찬하였다.²²⁾ 비교적 근래 저작물은 後稿 5책으로 간행되었고,²³⁾ 갑신년(2004)과 을유년(2005) 저작은 원고 상태로 있으니, 모두 합하면 50책 정도의 규모이다. 50책 가운데 雜著와 학문을 논하거나 사실을 논한 내용은 10책을 넘지 않고 狀·誌·碑文이 2천여 수에 달한다. 아래 인용문은 『학언지』 서문 일부로, 한시에 대한 변시연의 견해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내가 소년 시절부터 시를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학문에 전념하지 않고 재주마저 보잘 것 없어, 시를 짓는 데 대체로 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떠오른 감흥과 마주한 경치에 대해 또한 말할 만한 뜻이 없지 않았다. 그런즉 음률[聲律]과 음운[韻格]의 수준이 뛰어나나 볼품없냐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시들을 모아서, ‘學言志’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 어찌 ‘시’라고 부를 만하겠는가마는, 그래도 正風과 變風을 통해 경계하고 분발토록 하려는 뜻만큼은 담겨있지 않겠는가? 이 시집을 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나는 감히 말할 것이 없다.²⁴⁾

변시연이 자신의 시집 『學言志』 1책을 간행하며 시에 대한 평소 생각을 적어 놓은 서문 일부이다. 그는 ‘詩言志’²⁵⁾를 인용해 설명했는데 이는 고대 유가에서부터 전승되어 온 詩論으로 독창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시의 인식과 창작 근거로써 작가가 떠오른 감흥과 마주한 경치에 대해

22) 변시연의 저술 가운데 『학언지』, 『이지록』, 『역호설』, 『상유고』, 『속상유고』, 『손룡초』는 2000년에 영인 간행되었다.(『汕巖全稿』 전15책, 학민문화사, 2000.)

23) 『汕巖後稿』 전2책, 학민문화사, 2004.

24) 『汕巖全稿』 1, <學言志序>. “余自成童非不學詩 學之不專 才又陋拙 其於作也 蓋不能焉 然情景之遇 亦不無志之可言 則何關於聲律韻格之工拙 故蒐而簽之 曰學言志 詩云乎哉 至若正變懲感之義 則在乎覽之者月旦 余不敢言”

25) 『書經』 <舜典>에 “시는 자기 뜻을 표현한 것이요, 노래는 길게 읊조리는 것이다.[詩言志 歌永言]”라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뜻[志]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정풍과 변풍을 통해 뉘우치고 경계하며 감동하여 분발토록[懲創感發] 하는 시의 도덕적 효용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변시연의 한시를 살펴보면 수사적 기교보다는 표현이 소박하고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그의 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변시연은 性理說을 좋아하여 心·性·誠·敬에 대한 글을 남겼다. 五書와 五經에 대해서도 각각 시를 지었다. 또한 역사를 읊고 시국을 걱정하여 소회를 읊은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변시연은 자신의 저술 가운데 <세상을 한탄해 절로 읊은 글[歎世自吟書]>, <彙書를 생각함[懷彙書]>, <屈原을 애도함[弔屈原]>, <再生記>, <東行記>, <大學圖>, <讀書箚錄>, <岩下散筆>, <巽龍叢話>, <鳳巖書院復設實話>, <梅下隨記>, <列館記聞>, 『六十九年日記』²⁶⁾는 모두 사실에 근거해 쓴 글로, 훗날에 고증 자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²⁷⁾ 또한 변시연은 時調 99수를 남겼는데 대부분 장성의 서원과 祠宇, 학문이 뛰어나고 충절을 지킨 인물이나 무덤, 설화 등을 소재로 하고 있어 지역문화적 사료 가치가 있다.

변시연은 30여 년간 필암서원 임원을 지냈고 전남향교재단 이사, 유도회총본부 부위원장, 성균관 고문,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을 역임하였다. 특히 전남문화재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문화재조사보고서를 작성했고, 각종 신문과 잡지에 글을 연재하여 옛 인물과 전통문화를 알렸다. 또한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호남인물 200인선’, ‘전남문화상’, ‘모범장서가상’, ‘향토문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변시연은 2006년 10월 25일(음력) 향년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평소 염두에 둔 장성을 장안리 安鵬峰 癸坐 방향으로 묻혔다. 그는 평소 知分·知足·知止의 ‘三知’를 강조하였다. 주변 사람들에게게나 공식 행사에서 여러 차례 당부했기에 사람들이 ‘삼지학자’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求放心’과 ‘毋自欺’라는 글귀를 한평생 받아들여 지킬 좌

26) 변시연이 69년 동안 써오던 일기자료인 『汕巖日記』는 2023년에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탁되어, 현재 원문텍스트를 입력 중이다.

27) 李性雨, <汕巖府君家狀>.

우명으로 삼았다. 70세가 되던 1992년 봄에 터를 잡고 1994년 巽龍精
숨을 완공하여 후학 양성과 講會하는 장소로 삼았는데, 구방심과 무자기
에서 이름을 따와 求母室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III. 『文苑』 편찬과정과 방식

이 장에서는 『문원』의 편찬과정, 방식, 수록기준 등을 살펴봄으로써
편찬자 변시연의 문헌편찬 인식을 좀 더 깊게 이해하는 한편 향후 연구
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변시연은 1957년부터 32년간에 신라
이래 한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글을 수집하여 『문원』을 편찬하였다.
1987년에 『문원』은 원집 67책과 속집 7책 총 74책으로 저자 인원만 2
천 명이 넘고, 6천7백여 편의 작품이 실린 방대한 분량이다. 『文苑同刊
錄』도 함께 간행하여 간행에 동참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알려
주었다.²⁸⁾

앞서 변시연은 1957년 2월에 ‘호남문원편간회’를 결성하여 전남과 전
북의 향교와 서원에 통문을 돌리고 사라져 가는 호남지역의 고문헌 수
집에 나선 바 있다. 晦峰 安圭容(1873~1959), 欽齋 崔秉心(1874~
1957), 正齋 梁會甲(1884~1961), 陽齋 權純命(1891~1874), 玄谷 柳永
善((1893~1961), 曉堂 金文鉦(1901~1960) 등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변
시연은 실무총책을 맡았다. 傳言에 의하면, 한국전쟁 기간 중 수없이 많
은 고문서와 전적이 잣더미가 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차에 여러 사
람이 편간 목적에 찬동하여 많은 자료가 들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자기
선조의 글을 수록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변변치 못한 글들을 계속 보내
왔기 때문에 3년의 세월이 지체되었다고 언급하였다.²⁹⁾ 실제 1958년

28) <文苑同刊錄凡例>에 의하면, 『문원』 74책 중 원집 저자는 2,135인, 속집의 저자는
390인으로 총 2,525인, 원집 被傳者는 4,331인, 속집 被傳者는 540인으로 총 4,871
인이다. 작품이 6,737편, 한자 수가 538만 5천여 자이다.(『桑榆稿』 권1)

29) <文苑編刊會通文>. “設爲文苑者三歲 委靡并至 而氣盛者罕 是役之遷延 職是之由”

12월 호남 각 지역에서 文苑收單 중 편찬 범례에 부적격하다는 사유로 500여 건이나 반송하였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호남이라는 단어는 빼고, 1959년 3월에 ‘문원편간회’로 개칭하고 변시연 간사를 대표로 해서 10월에 전국 유림에 통문을 돌렸다. 『문원』 편찬을 위해 소요된 30여 년의 기간은 현대사를 관통하는 시기였기에 정치적인 파동과 물가의 급변에 따라 어려운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한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에게 30만원을 보조받았는데, 당시 이는 쌀보리 3백 섬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이후로 문교부, 문예진흥원, 정신문화연구원,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등 여러 기관이 여러번 자금을 보조해 주었다. 특히 全錫洪·崔仁基 전남지사 등을 찾아가 『문원』 이외 발간하지 못한 遺稿들을 대상으로 道費를 확보해 30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³⁰⁾

변시연은 역대 선집본인 『東人之文』, 『三韓龜鑑』, 『東文選』, 『文苑備考』, 『東文粹』, 『東文百選』, 『麗韓九家文鈔』에 대해서 극히 감식안이 있으나 대부분 문장을 위주로 선집하여 학문을 논하거나 實事에 대해서는 선집할 겨를이 없었다고 평하고 있다. 즉 역대의 선집본들은 선정한 인물의 높은 안목으로 우리나라 역대 詩文에 대해 극히 精選하여 한문학의 자부심이라든지 典範을 추구하기 위해 편찬하는 등 시대별로 특징의식과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하지만 역대 선집본의 경우 한문학이 전성기를 형성했던 시기에 선집했던 반면, 『문원』 편찬은 1950년대 한문학이 사회적으로 도태된 시기에 보존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시대적 차이가 있다.

그럼 『문원』의 수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다. 변시연은 『문원』 발간을 위해 전국 각지의 여러 문중을 비롯하여 향교·서원에 통문을 보내 『문원』의 간행 배경을 설명하였다. 통문은 서문과 범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편찬과정과 수록기준을 알 수 있다. 『문원』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작품을 수록했을까? 통문 앞부분의 서두에 道와 文章에 관한 변시

30) <한국고문연구회의 연혁과 활동>, 『汕巖別稿』(上), 한국한문교육연구원 발행, 도서출판흐름 편집, 2005.

연의 견해가 실려 있다.

文으로 道를 싣고, 道로 문을 드러내니, 문의 성쇠가 도의 높고 낮음에 관계되어 있다. 물[水]이 많으면 어떤 물건이라도 크고서 작거나 모두 다 물 위에 뜨게 되고, 문이 성대하면 은미한 도에 대해 조리를 찾을 수 있다. 쇠약하여 시들한 문에서 도를 찾는 것은 거센 여울에서 배를 띄어 놓은 격이니, 도를 논해도 근원을 찾을 수 없고 글을 지어도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일을 기록해도 실체가 빠져 있게 되어 모두 형편없는 글이 된다.³¹⁾

인용문에서 언급한 ‘文以載道’는 북송 周敦頤가 ‘문이란 도를 싣는 것이다.[文所以載道]’³²⁾라고 했던 유명한 발언이다. 이는 唐나라 韓愈를 비롯하여 문과 도의 관계를 논의한 이론을 발전시킨 문을 載道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했다. 또 물[水]과 부유물을 들어 다시 도와 문의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물이 많으면 어떠한 크기의 물건이라도 다 물 위에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문장에서 氣의 성대함을 강조한 말이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유명한 한유의 <答李翊書>를 원용한 것이다.³³⁾

변시연은 『문원』에 수록할 작품의 첫 번째 조건으로 바로 氣가 성대한 글을 꼽고 있다. 1957년 호남문원편간회 통문에서도 氣가 성대한 글을 수록하겠다는 편찬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기가 성대한 글에는 道學, 文章, 紀事의 글이 있는데, 문체는 다르지만, 기가 성대하다는 측면에서

31) <文苑編刊會通文>: “文以載道 道以文顯 文之盛衰而道之隆污係焉 水大則物之來者大小畢浮 文盛則道之微者 條理可尋 求道於委靡之文 如泛航于湍瀾 論道而不尋源 爲文而不成章 記事而沒其實 均之爲無文 必曰氣盛之文乎 氣盛之文 亦非一端 有道學之文 文章之文 紀事之文 文雖不同 氣盛則一”

32) 송나라 주돈이의 『通書』 <文辭> 제28에 “문이란 도를 싣기 위한 것이다. 수레를 꾸몄는데도 사람이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괜히 꾸민 것이다. 더군다나 텅 빈 수레라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文所以載道也 輪轅飾而人弗庸 徒飾也 況虛車乎]”라고 하였다.

33) ‘氣는 물과 같고 말[言, 文辭]은 물 위에 뜨는 浮物과 같으니, 물이 많으면 크고 작은 부물이 모두 뜬다. 기와 말[言]의 관계도 이와 같아, 氣가 성대하면 말[言]의 長短과 聲韻의 高下가 모두 알맞게 된다.[氣 水也 言 浮物也 水大而物之浮者 大小畢浮 氣之與言 猶是也 氣盛則言之短長與聲之高下者皆宜]’라고 하였다.

는 동일하다고 하면서 성리학을 비롯하여 문학, 역사기술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문원』 편찬에 대하여 필암서원 儒會에서 논의하여 정한 범례 22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에서는 신라와 고려 시대 이후 고종 연간까지의 淵源에 구애하지 않고 名流들의 문집과 부록 가운데 精要한 것을 가려 『문원』이라 하고 150부를 인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별기준과 경비 등을 비롯한 22개 항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전국적으로 방대한 분량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편찬 초기의 범례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당초 『문원』의 간행 부수와 배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책의 규격은 四周大小雙邊 1행 32자, 부수는 韓紙版 20질, 노루지 130질로, 총합 150질을 인쇄하였다. 우선 75질은 무상으로 성균관, 18인 先正의 본서원, 국립도서관, 각 도의 국립대학도서관, 四掌管鄕校, 동서양 여러 나라의 국립도서관에 분질하고, 75질은 유상으로 각도의 명문가에 분질을 한다는 계획을 범례에서 미리 세웠다. 몇몇 문중들이 正租 3섬 5말을 미리 납부하면 인출하는 대로 배포하지만, 개인 구독은 허락치 않았다.

또한 通文 凡例에는 40가지 문체를 제시하였는데, 『문원』에 수록된 범례에서는 훨씬 많은 74가지 문체가 제시되어 있다. 아마 통문에서는 40가지 문체로 제시했다가 실제로 작품을 모으고 분류하여 수록하는 과정에서 74가지 문체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³⁴⁾ 다음은 두 범례에 보이는 문체 종류이다.

34) 卷之一 앞 卷之首에 經이라는 항목에 <天符經>, <三一神誥>, <三一神誥奉藏記>가 실려있다.

통문의 범례_문체 40종류	실제 『문원』 범례_문체 74종류
敎文, 致祭文, 立案文, 完文, 疏筭, 箋, 書, 雜著, 論, 說, 表, 策, 頌, 銘, 義, 箴, 贊, 賦, 辭, 婚書, 告祝, 祭文, 檄文, 通文, 薦狀, 啓文, 上梁文, 序, 記, 跋, 神道碑, 碑, 墓碣, 墓表, 墓誌, 諡狀, 行狀, 遺事, 實記, 傳	玉冊文, 竹冊文, 哀冊文, 頒敎文, 敎命文, 敎書, 諭書, 致祭文, 賜祭文, 諭祭文, 祈禱文, 賜額文, 批答, 立案文, 完文, 上疏, 表, 箋, 啓, 筭子, 封事, 狀, 奏, 牋, 上言, 獻議, 策, 國書, 書, 牘, 文, 訓, 說, 誌, 錄, 辨, 論, 解, 雜著, 序, 記, 跋, 頌, 銘, 箴, 贊, 歌, 辭, 別曲, 青詞, 操, 詞, 賦, 婚書, 疑, 義, 上梁文, 祝文, 墓誌, 墓碣銘, 墓表, 諡狀, 行狀, 家狀, 行錄, 遺事, 行蹟, 事蹟, 事實, 實記, 敘迹, 行略, 實狀, 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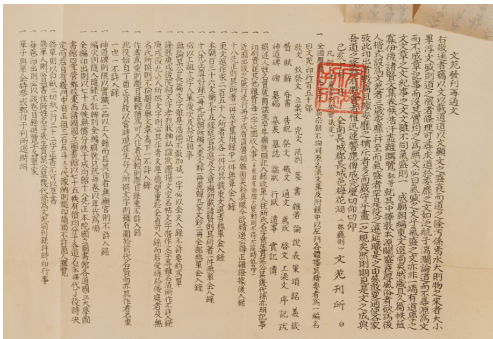
문체 분류에는 반드시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하고, 대분류·중분류 등이 고려되어야 했는데 실제 수록하는 작품에 따라서 수록하는 문체가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애당초 敎文이라는 문체만을 설정했다가 玉冊文, 竹冊文, 哀冊文, 頒敎文, 敎命文, 敎書, 諭書로 세분화하여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誌, 錄, 辨, 解, 歌, 別曲, 青詞, 操, 詞, 疑 등 수록하는 문체가 대폭 확장되었다.

변시연은 시대가 변하여 고문헌을 마치 쓸모없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현실에 대해 느끼는 憂患 의식의 발로가 『문원』 편찬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기에 옛 작자의 대표작은 문체에 구애하지 않고 수록했기 때문이었다.³⁵⁾

문체별로 배열하고 매권마다 연대순으로 편차 하되 상소, 편지, 잡저 등은 작자의 연대순으로 했고, 碑誌類 등의 산문은 제목의 연대순으로 편차하였다. 그리고 목록은 매권마다 붙였으며 별도로 총목록 2권을 작성하였다. 또한 작자의 성명, 자, 호, 본관, 관직, 시호, 생졸년 등을 일괄 수록하여 권 머리에 붙였다.

35) 『桑榆稿』 권3, <文苑序>.

편찬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修單하는 사람은 찬술인의 성명, 본관, 爵號, 생졸년을 분명히 기록하여 수록하며, 수단하는 본인의 주소, 성명, 자호, 본관, 그리고 某公의 몇 대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기록하도록 하였다.³⁶⁾ 수단하는 집안은 반드시 먼 조상의 문자 수단을 먼저 보낸 후 차례로 가까운 선조의 수단을 보내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수단할 때 白紙 2절지, 1행에 32자씩 正書로 써야 하며 초서로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³⁷⁾ 또한 아무리 장편의 작품이라도 전문 수록을 원칙으로 하고 요약을 허락하지 않았다.³⁸⁾ 비용에 대해서는 인쇄비와 아울러 기타 잡비까지 포함하여 매 1자당 7圓을 거두고, 만일 물가가 대변동이 있으면 때에 따라 값을 책정한다고 명시했다.³⁹⁾



<그림 1> 『문원』 발간 통문(한국국학진흥원 소장)
1959년 10월에 『문원』 발간을 위해 도산면 분천리
농암 이현보 중가에 보낸 통문이다.

다음의 경우는 수단금 없이 수록하였다. 문묘에 배향된 18인 先賢의 저술 1건 및 문집 부록 중 1건을 비롯하여 『동문선』 작가 250인이 저술한 글 몇 건은 『동문선』 수록된 글로 수단금 없이 수록하였다.⁴⁰⁾ 그리고 조선시대

136명의 文衡과 抄選된 95명의 경연관 및 문장을 편찬할 때 실린 제현의 저작 몇 건은 수단금 없이 수록하였다. 『東文粹』, 『尊好錄』⁴¹⁾, 『大東文粹』,

36) 『桑榆稿』 권3, <再通文>. “一 撰述人姓名字號貫號爵諡 生卒年廟號 明記事”
“一 受單人則必具書住所姓名字號生貫某公某幾代孫 爲文苑同干錄 并時印行事”
37) “一 修單 則以白紙二切紙 一行三十二字 必楷書事”
38) “一 無論某公 長篇文字 雖甚浩煩 不敢加減一字 必以全文入錄 不許要約爲單”
39) “一 印刷費并其他雜費 每一字七圓收入而物價有大變動 則不得不隨時低昂”
40) “一 東文選作家二百五十人所著文各幾件 以其載東文選者 無單金入錄”
41) 文廟에 제향된 東邦名賢 18人의 행적을 모아 엮은 책이다.

『麗韓九家文鈔』, 『東文百選』 전부는 수단급 없이 수록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일제에게 강점당한 경술년(1910) 이후 서원·사당에 관한 문자, 孝烈狀軸, 私諡狀, 찬양문, 空名帖 문자, 대리로 지어준 문자 등은 비록 유명한 인물의 작품이라도 수록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또 경술년 이후 사망한 사람이 찬한 문자 중 반드시 그 작가의 문학과 덕망이 전국적으로 중대하면 수록할 수 있지만, 만일 일제 정부에 녹봉을 받거나 무명씨가 찬한 작품은 제목이나 문장의 고하를 막론하고 일체 수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비중이 있는 작가라면 제목이 가볍더라도 오히려 수록할 수 있지만, 비중이 없는 작가라면 제목이 비록 중요하더라도 수록을 허락하지 않았다. 神道碑의 경우 實職 2품 이상을 한하여 수록하는데 또 작가가 顯官이 아니면 수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문원』 편찬이 1957년(정유년) 1월에 시작되었기에 당시 생존한 인물이 찬한 글이 비록 전대의 名賢과 관련되고 그 찬한 인물의 당대에 명망이 중하더라도 일체 수록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⁴²⁾ 이는 당시까지만 해도 유림이나 문중에서 爲先 사업에 열망이 남아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당시 출판이 성행하여 세상에 돌아다니는 책자에는 진위가 뒤섞여 있어 精選하고자 반드시 명확한 증거를 얻은 후에 수록해야 한다⁴³⁾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文苑後識>⁴⁴⁾를 보면, 편찬과정에서의 오류를 언급하고 있다. 두 번 수록한 작품이 1건 있고, 贋作 몇 건이 있으며, 오자와 누락된 글자 또한 적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수십년 동안 방대한 분량을 편찬하느라 藻鑑에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1973년 12월에 <文苑刊所時到記序>를 작성했는데,⁴⁵⁾ 1962년 6월부

42) “一 此役始自丁酉正月 故以當時現在生存人所撰文字 則雖有關於前代名賢 而且其作者名重一世 一不許入錄”

43) “一 近因出判之盛行 流行冊子 或有眞贋相雜 貽笑於具眼 今欲精選 必得正確證據後入錄”

44) 『桑榆稿』 권1, <文苑後識>.

45) 『而之錄』 권9, <文苑刊所時到記序>.

터 1973년 12월까지 11년 7개월 동안 4만 8,500명의 시도기를 남겼다.⁴⁶⁾ 원래 時到記는 향교 또는 유림의 공식 행사에 참석자 명단으로, 개인 집을 방문한 경우의 방명록이 아니라 시도기를 남긴 것은 그만큼 文苑 편찬이 유림의 입장에서 볼 때 斯文의 큰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⁴⁷⁾

시도기에 수록된 인원을 하루로 평균을 내면 11년 7개월 동안 12명씩 매일 방문한 셈이다. 적게 올 때는 4, 5명 정도이고 많이 올 때는 6道 13郡에서 일시에 회동한 때도 있었다. 변시연이 타지로 출장 중인 날이 많아 누락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인원이다. 이는 色目에 구애하지 않고 신학문하는 사람들 역시 소홀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성대한 호응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만일 이익만을 도모하여 진위를 가리지 못하여 수록했다면 방대한 문원의 편찬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없었음을 강조했다. 변시연의 사위이자 한학자인 이성우는 『문원』 편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墓碣銘에서 밝히고 있다.⁴⁸⁾

編文大役	문원 편찬이라는 크나큰 일로
嚆矢國學	국학 부흥의 효시가 되었으니
元首有顧	대통령도 성원한 적 있으며
士林協力	사림들도 협력을 다 하였네
大業能了	대업을 제대로 마무리하여
窮陰有績	한 겨울 속에서도 공적이 있었네
惟此一着	오직 이 한 가지 사업만큼은
後前無敵	전무후무할 일이라 하겠구나

『문원』이 편찬되자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주최하여 전국적으로 고문헌 수집과 조사연구에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당시에 외국의 유명 대학연구소에도 무료로 기증 배포되어

46) 『문원간소시도기』는 총 24책 漢籍으로 편철되어 전해지고 있다.

47) 변시연에게 時到記를 작성하라고 권유한 인물은 醉軒 金從洙이다.

48) 李性雨, <汕巖先生黃州邊時淵墓碣銘>.

한국학의 精髓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였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산암 변시연의 생애와 유림활동, 그리고 『문원』의 간행 과정과 편찬 기준에 대해 서술하였다. 변시연은 근현대사의 격동기에 선대의 고문서, 전적들이 망실을 당하는 경험을 통해 대규모 문헌 수집·정리·편찬에 뜻을 두고 평생토록 실행에 옮겼다. 변시연은 선조와 儒賢, 서원, 사우 관련 문헌들을 지속적으로 편찬 간행함으로써 선조의 위상을 높이고 유림의 결속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1957년부터 32년 동안 원집 67책, 속집 7책 총 74책으로, 수록 인물 2천여 명에 6천 7백여 편의 글을 수록한 『문원』을 편찬했다. 『문원』 편찬은 1950년대 漢文이 사회적으로 도태된 시기에 보존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한문학이 사라지는 현실에 개탄했던 한 개인의 집념에서 출발하여 『문원』이라는 거작을 편찬한 것이다.

1957년 2월에 호남문원편간회를 결성하여 호남의 향교와 서원에 통문을 돌리자 여러 유림이 편간 목적에 찬동하여 많은 자료가 들어왔지만, 1958년 12월 편찬 범례에 부적격하다는 사유로 500여 건이나 반송하였다. 그 후 호남이라는 단어는 빼고 1959년 3월에는 문원편간회로 개칭하여 전국적 범위로 확대하고 10월에는 전국 유림에 통문을 돌렸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교부, 문예진흥원,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자금을 보조해 주었다.

변시연은 『문원』에 수록할 작품의 첫 번째 조건으로 바로 氣가 성대한 글을 꼽고 있는데, 기가 성대한 글에는 道學, 文章, 紀事의 글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리학을 비롯하여 문학, 역사기술 등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필암서원 儒會에서 논의한 『문원』 편찬 범례 22개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체 종류, 선별기준, 절차, 경비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과거처럼 목판이나 활자본 방식이 아닌 근현대 석인본이

라는 새로운 인쇄술로 인하여 대량의 작품을 수록할 수 있었던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문원』 간행에 동참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모아 『문원동간록』을 간행하였다. 그리고 1962년 6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11년 7개월 동안 4만 8,500명의 명단을 수록한 『文苑刊所時到記』를 남겼다. 이는 향후 현대 유림의 인적 네트워크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69년 동안 써오던 『산암일기』가 남아 있어 현대 유림의 생활사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자료로 파악된다. 이상의 자료들에 관한 연구는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 이 논문은 2024년 08월 1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8월 27일부터 09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9월 13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원문 자료>

- 『汕巖日記』, 친필본, 미간행.
『文苑』, 한국고문서연구회 편집, 2000.
『汕巖全稿』, 학민문화사, 2000.
『黃原州邊氏文獻錄』 전4책, 학민문화사, 2002.
『汕巖後稿』 전2책, 학민문화사, 2004; 2006.
『汕巖別稿』, 도서출판 흐름, 2005.
『巽龍詩稿』, 손룽음사 발행, 청진문화사. 2006.

<저서 및 논문>

- 박학래, 「기우만 문인들의 강학 활동과 노사학과의 지속」, 『유학연구』 57집, 2021, 71~108쪽.
이천승, 「해방후 位牌埋安을 통해 본 유림계의 동향」, 『동양철학』 제54호, 한국동양철학회, 2020, 101~137쪽.
홍치유 저, 전병수 역, 『관선정에서 들리는 공부를 권하는 노래-겸산 홍치유 선생 권학가』, 「관선정서숙과 홍치유」, 도서출판 수류화개. 2020.

Abstract

Sanam Byeon Si-yeon's Activities as a Confucian Scholar and Publication of *Munwon* (文苑)

Kim, Kun-woo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life and activities of *Sanam* (汕巖) *Byeon Si-yeon* (邊時淵, 1922-2006) as a Confucian scholar, and the process of his publication of *Munwon* (文苑) and the criteria of its compilation.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twentieth century was a time of great crisis in which the very foundation of Confucianism was shaken to its roots. The second motivation is the approach that studying the life and activities of a modern and contemporary Confucian scholar who lived through the shock of the century can be a starting point for a proper understanding of our current situation. Having experienced the loss of the precious documents and written resources from previous generations during the turbulent tim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Byeon Si-yeon decided to devote his life to collecting, organizing, and compiling documents on a large scale. In particular, over a period of 32 years from 1957, he compiled *Munwon*, which consisted of 67 volumes of complete collections and 7 volumes of sequels, totaling 74 volumes, featuring about 6,700 articles and 2,000 people. He presented 22 explanatory notes for the compilation of *Munwon*, which were discussed in the group of Confucian scholars (儒會) at Piram Seowon, which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types of writing styles, selection criteria, procedures, and costs. He also published *Records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Munwon Publication* (文苑同刊錄) abou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publication of *Munwon*. And he released *Munwon Publication Venue Visitor List* (文苑刊所時到記) which is a record of about 48,500 people over 11 years and 7 months from June 1962 to December 1973. This is a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personal networks of modern Confucian scholars. He also left behind the *Sanam Diary* that he had written for 69 years, which is considered an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on the lives of modern Confucian scholars.

keywords :

Confucian scholars, Munwon (文苑), *Byeon Si-yeon* (邊時淵), *Records of People Who Participated in Munwon Publication* (文苑同刊錄)